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1호 [루게 제24379호] 주제 102(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리재일 동지, 최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 총장 배동일 동지, 당비서 리종현 동지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나라의 건축인재양성의 원종장, 건설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과학연구기지로 강화발전되어 주체건축발전사에 자랑스러운 연혁을 새겨여왔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전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대학을 창립해주시고 여러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을 건설부문과 도시경영, 국토관리, 환경보호부문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학졸업생들 가운데서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이 배출된 사실만 놓고보아도 부강조국건설에서 대학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이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들의 형성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창작설계하여 권위있고 관록있는 건축설계집단의 위력을 떨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창립후 지난 60년간 대학이 거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유능한 건축창작집단, 민음직한 건설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인 평양건축종합대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과학전시관, 건축설계실, 미술실기실, 외국어 시청각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재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는 전당으로 발전시켜주시고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의 설계를 맡겨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학의 명칭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명명해주시고 이곳 교직원, 학생들이 창작한 수십건의 건축형성설계를 몸소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육사업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속에서 대학이 수백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두고 여러 부문의 건축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과 학부들, 수십개의 강좌와 박사원, 연구소 등을 가진 종합대학으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

대학에 주체건축발전관을 잘 꾸려놓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대학의 강화발전예에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수많은 건축물들마다에는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다고 치하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능력있고 유망한 건설, 건재부문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교육과 생산노동,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며 수재교육과 박사원교육, 일하

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지방들에 있는 건설부문 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학적지도, 학술적지도도 맡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 종합적인 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해 주며 원격교육체계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학생들은 당이 구상하는 사회주의문명국설계도를 자기가 작성한다는 자각과 건축분야에서 우리 나라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가들을 압도하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대학생들은 설계탁에서 문명국의 태일이 그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부르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도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대학의 명예충장이 되시겠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건축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학의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더욱 옹호고수하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나가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 월남의 호志明주석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을 조선월남친선 경상유치원에 모시는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월남의 호志明주석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을 조선월남친선 경상유치원에 모시는 행사가 26일에 진행되였다.

김정숙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조선월남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판

계부분 일군들, 유치원교양원들과 폐광 부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월남의 호志明주석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꽃바구니를 진정찬 다음

인사를 드리였다.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월남을 방문하신 55돐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조선월남친선 경상유치원 호志明반에 사진문헌을 모시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 평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조선과 월남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 선군정치는 조선의 존엄을 떨친 위력한 정치방식

위대한 평도자 김일성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는 회고모임이, 나이지리아에서는 로작동보회가, 베넌에서는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19일과 2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나흐트카시의회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시의회는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필독문헌으로 정하고 로작학습을 통하여 그의 위대성을 절감하였으며 조선식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미제의 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온 세상에 과시할 수 있게 한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김일성동지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그의 영생을 기원한다.

우리는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현대성을 보인다. 나이지리아자력갱생연구소 조 대리위원장은 위대한 평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 대한 독보회에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운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다는 철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베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조 책임자는 김일성 평도자께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신것은 인류사주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책동이 막막해지고있던 시기 김일성평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리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게 되였다.

김일성평도자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활동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시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로동계급과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준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

【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우리 조국땅에 어머니당의 사랑이 꽃같이 넘쳐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인민의 기쁨이 날로 커가는 속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과 평양시내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이 여러가지 수산물들을 받아안았다.

은정이 깃든 물고기가 26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유치원, 탁아소들에 전해졌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지난 10월 공장에 찾아오시어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합숙부지도 물론 정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것이 었것같은데 또다시 많은 수산물을 보내준 당의 은덕에 종업원들모두가 가슴뜨거워움을 금치 못하였다.

천부모의 사랑에도 비기지 못할 한없이 뜨거운 정은 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보담의 충정으로 옮겨 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꽃같이 이어지는 당의 대해같은 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질 좋은 옷감을 비롯한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평양시내 유치원, 탁아소 교양원, 보육원들의 가슴마다에도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가득차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깊이 새기고 어린이들을 당의 참된 아들딸로, 앞날의 사회주의조국을 떠맡는 역센 기동감으로 키워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서 각지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나무심기 진행

각지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26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서 나무심기를 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시(구역), 군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은 19종에 8 000여그루의 나무와 나무모, 함박꽃을 비롯한 8종에 3만 2 500여개의 꽃부리와 꽃씨들을 마

련하였다.

그들가운데는 수종이 좋은 많은 나무와 꽃부리들을 가지고는 벽성군 사현협동농장의 초급농근맹일군들과 자기 집트락에서 가까운 행나루, 창성이갈나무모들을 안고는 안주시 원흥농장, 남변군 오봉협동농장 농장원들도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할 일념으로 그들은 정성껏 나무들을 심었다.

나무심기에 참가한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살로써 충직하게 만들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는 참된 총복이 되자

## 헌신으로 빛나는 이름 - 어머니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자기자신을 당의 기둥으로 비추어 보며 끊임없이 재검열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계획을 위한 벽한 투쟁의 나날에 만반을 준비하여 어머니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순천지구청년단체협의회 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모습은 참으로 돋보인다.

### 사랑과 정을 안고 내려가자

지난 2월 어느날 저녁이었다. 순천지구청년단체협의회 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몽필동무는 하나의 자로 눈길을 둔채 이우동무 사무실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부부장 운영담당부, 컨설팅년판 3개 채탄 1중대의 한 채탄공의 인체가 해산한것을 알고 건강에 손해가 될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서 적극 도와줌.』  
 『부부장 고영철동무, 컨설팅년판 6개 채탄 1중대 채탄공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줌.』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 순천지구청년단체협의회 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

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의 전두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리고 일군들뿐만 아니라 구역적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당세포들에 내려가 도와준 자료들중에서 정말 반가운 사료였다.

『형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이 당세포들에 사랑과 정을 안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라!』

다음날부터 책임비서는 그 일군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전해 주는 한편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당세포들에 내려가 세포비서들과의 편제에 당원들의 당성활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으로 만족해하던 일군들의 판적이 새로와졌다.』  
 『... 부부장 고영철동무, 컨설팅년판 6개 채탄 1중대 채탄공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줌.』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벌어지는 전두적과업에서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강화되고 당정책판명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당세포들의 위력이 높고 떨쳐지게 되었다.  
**믿고 키워주기겠다**  
 지난 여름 어느날 2.8직종청년단체협의회 혁신자축하모임이 있었다.

1개의 한 초급일군을 만난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어느 한 채탄공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것을 포착하고 그의 생산실적을 물었다.

『초급일군은 난처해하며 말하기를...』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년초에 세운 목표들도 방대했지만 일군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새로운 이름한 목표들을 더 내세우고 힘찬 돌진전을 벌였다.  
 헌신에 내려온 도의 해당 일군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오로공장의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면서 불과 몇달동안에 5일만부휴양소를 일떠세운 사실을 높고보고.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현행식량생산증진을 위한 당정책지도를 철저히 짜고드는 속에서도 수시로 휴양소건설장을 찾아 건설자와 함께 뛰고 돌며 근로자들에게 힘찬 격려를 주어 주었다.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한번 뒤여 안다면 열번, 백번 뒤여 서로라도 기어미 끌어 주어 그들이 우리당을 진실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의 심정이나 오죽하였는가.) 그리하여 초급일군은 그날 밤 최동무의 집을 찾아 밤길에 나섰다.  
 밤길을 걷는 초급일군에게는 그와 함께 보대된 발전소건설의 나날이 떠올랐다.  
 동정약화력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 그리고 어랑천발전소, 그 발전소들마다에는 최동무의 진한 땀이 얼마나 뜨겁게 배어있는것인가. 그 나날 그는 창고고안명수로, 발명가로, 혁신자로 늘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한때, 두레 기술능력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축하의 박수갈래가 늘어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중에는 집단과 동지들은 안중에도 없이 생활하게 되었다. 이런 그를 중앙위원회가 좋아할리가 없었다.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심한 자책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최동무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그날 초급일군은 그와 하루밤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건설장에서 날에달마다 이룩되고있는 혁신의 소식들에 대해서, 발전소건설에 순결한 믿음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이 당의 믿음속에 조선로동당원으로, 로력혁신자로 자라나 사실들에 대하여...  
 그날 최동무는 초급일군의 손을 잡고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줄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조직의 진심어린 방조속에 성실하게 일하여 발전소건설에서 나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를 이룩하였다.  
 집단과 동지들의 믿음과 사랑속에 로력혁신자로, 그로로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났다. 몇해전에는 혁명의 수도평양에서 열리는 신근형명연구소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 군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자

### 신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려는 당일군들의 지향은 한결같다. 그런데 해 실적에서는 차이를 나타내, 인민에 대한 관철과 평가가 얼마나 투철한가 하는것이 판명된다.  
 경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 로동자들이 자랑하는 보금자리

### 신의주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신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정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한번 뒤여 안다면 열번, 백번 뒤여 서로라도 기어미 끌어 주어 그들이 우리당을 진실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 단위의 비약적발전과 좋은 방법론

### 분천탄광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모두가 두손을 들어 지지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당, 근로단체위원회는 물론이고 탄광협회 부서의 부서, 봉사 및 보장단위들이 결집, 체탄소대들을 하나씩 고정부담시키고 석탄생산은 소대와 함께 책임지게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분담을 한것으로 소대강화계획이 풀렸다.  
 초급당위원회는 행정일군들과 힘을 합쳐 소대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골짜간 노력을 끝까지 체탄소대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일군들이 소대원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한것 등을 들 수 있다.  
 담당한 부서, 단위일군들속에서 소대를 돌리는 미공이 날로 꽃피었다.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갠망에 들어가 골짜간 및 체탄소대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 후방사업을 하는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일로 되었다. 일군들은 소대원들의 가정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미리 알아보고 풀어주었다. 온돌수리대책을 세워주고 참고를 지어주는가 하면 자녀들의 학습과 조직생활에도 관심을 돌려 소대원들이 집 걱정을 모르고 석탄생산에 전심할수 있게 하였다.  
 그럴수록 초급당위원회는 소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방비론있게 밀고나갔다. 총화 및 평가사업을 소대강화에 지향시켜 한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매달 생산총화때 초급당위원

『... 열매진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불길공사를 다쳐 끝낼 결의에 넘쳐있는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본사기자 리정수, 본사기자 최영길, 본사기자 리종석, 본사기자 김향련, 본사기자 리승철

# 위대한 당의 경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신념과 의지

##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부르며

### 중구역당위원회 일군들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비상한 건인력과 감화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위대한 당의 경도를 따라 중형혁명업무를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집은 신념과 의지가 이 땅 그 어디까지나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우리는 중구역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그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 온 우리 당의 붉은 기폭과 이땅에 마련된 사회주의전취물들따라서는 수령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믿고 당원들과 인민들은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며 충정으로 받들어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깃들여있습니다.》

중구역당위원회에서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통한 교양사업을 원력적으로 깊이 하고 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노래보급 및 해설사업을 위한 작전을 잡았다.

구역당책임비서 리창성동무는 얼마전 어느 한 모임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뜨겁게 간직된 조선로동당의 당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어려우며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와 찬란한 미래가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온 구역에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자신이 먼저 노래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뜻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구역당일군들부터 이 노래를 널리 부르도록 하였다.

중구역부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도 직장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아침독서시간과 작업의 일함 등 여러 계기들에 노래보급사업과 해설모임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경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일터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나가기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구역역료사범소, 중구역종합식당, 중앙로리 학원을 비롯한 구역안의 공장조직들에서도 노래보급사업과 해설모임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다.

### 평양양말공장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당과 함께 승수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모두 당당히 나아가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는 평양양말공장을 찾았다. 공장주머니에 들어서니 양말작업장에서 울려나오는 설비들의 동음과 더불어 울려퍼지는 빛나는 격조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보급과 해설모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노래보급 및 해설사업을 위한 작전을 잡았다.

구역당책임비서 리창성동무는 얼마전 어느 한 모임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뜨겁게 간직된 조선로동당의 당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어려우며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와 찬란한 미래가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온 구역에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자신이 먼저 노래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뜻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구역당일군들부터 이 노래를 널리 부르도록 하였다.

발자국소리가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는 우리의 당기.

하기에 이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양말을 만들어 공급하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12월의 추운 겨울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오시어 아버지장군님의 로고를 잊지 말고 더 질 좋고 더 많은 양말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인격주어 아 한다고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언저와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총성의 맹세가 더욱 굳어진다. 종업원들의 격정에 넘쳐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어제 이틀뿐이라.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것만 같은 이 노래를 삼과 투쟁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일념으로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보급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공장의 모든 직장, 작업반들



평양양말공장 로동계급

### 풍서군 로흥협동농장에서

얼마전 우리가 로흥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 당일군인 리주학동무는 우리와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자랑부터 하였다.

《우리 농장은 풍서군 소재지에서 70여리 떨어진 산골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3개의 중소형발전소가 있어 알뜰생산과 건설도 본래있게 내밀고 생활에서도 부러운것을 모릅니다. 자체로 생산한 전기를 제제기를 팡팡 돌리니 편의봉사망을 비롯하여 여러 품종전투와 350여세대의 살림집건설도 걸심하게 되어있습니다. 농기계부속과 농기구생산은 물론 낱알털기와 농마, 국수생산이며 콩같이 등 여러가지 식료가공도 마음먹은대로 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것은 바로 농장에서 자체로 전기를 팡팡 생산한 덕이라고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팔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대대고 실력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관리위원장 구순동동무는 농장의 중소형발전소들로서 자랑을 내내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농장에서 함흥수리역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것은 1980년대 말이었다. 군당위원회에서 돌격대를 조직하여 농장을 적극 도와주었다.

《우리는 다음해 또 하나의 소형발전소를 건설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덕을 크게 보니 정말 자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장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결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우리 주변나라들을 행각한것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사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우리 주변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말과 행동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고집하면서 6자 회담대개를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이 애당초 6자회담대개에는 관심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6자회담은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조선반도핵문제를

## 그는 오늘도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있다

### 운송곤발전소건설 및 운영사업소 지배인이었던 조종렬동무

사람은 인생의 첫걸음을 걸 때부터 인생의 마무리도 걸어야 한다.

현대의학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불치의 병진단을 받았던 운송곤발전소 지배인이었던 조종렬동무의 삶은 생이 생활의 이 진리를 옹호하며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야 하며 언제나 애국투쟁의 선봉에 서서 인민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야 합니다.》

지난 1월초부터는 사무실에서 지배인 조종렬동무와 마주 앉았다. 부사부작한 지배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초급당비서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지배인동무는 동지들의 권고를 별로 안나기?》

진정으로 노력하는 초급당비서에게 조종렬동무는 나직하 나 절절한 어조로 말하였다.

《비서동무, 저는 제 병을 잘 압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 좀 도와주십시오. 전진입니다.》

초급당비서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그가 불치의 병을 앓고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지. 지배인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음을 떠날 줄 알았다. 당시 사업소에서는 발전설비 개조준비가 벌어지고있었다. 그때까지 발전소에서는 설비보수가 제기될 때마다 부속품들을 교체하느라 많은 자금을 소비해야 하였다. 이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할것을 결심한 조종렬동무는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백두령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조종렬동무는 배려부신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설비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었다!

모두가 지배인의 열렬한 호소에 호응해나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졌고 걸린 고리들이 하나, 둘 풀려나갔다. 자재유류문제까지 제기되지 지배인은 헌히히 말아나갔다. 그러나 그제 종업원들은 지배인에게 모진 아픔을 강한 의지로 이겨내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의사인 안해만은 남편의 몸상태를 알고있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정할것을 권고할 때면 조종렬동무는 웃으며 말하였다.

《나야 발전소의 주인이 아니요. 발전기가 돌아가야 내 힘이 뚝 떨어지지.》

발전소의 주인, 그 말은 조종렬동무가 임버릇처럼 외우는 말이였다. 그만큼 그는 발전소를 사랑했고 거기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다.

몇해전 군에서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운송곤3호발전소건설을 시작하였다. 군인민위원회 부원으로서 사업하던 조종렬동무는 스스로 건설장에 관한한 모든것을 다 하였다. 그는 자기의 어깨에 놓여있는 모든 책임감을 늘 가슴속에 새겨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언제나 앞장서었다.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위해서 대추기탄을 앞아서 기다리지 않고 도의 땅산들을 찾아 그는 남모르는 밤길도 수없이 걸었다. 물길결정투가 벌어질 때에는 누가 지배인이고 누가 로동자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때로는 작업장이 피고 이면 때에는 발바닥이 피기도 하면서 그는 모퉁이에 날뚝터 어깨를 들이밀며 돌과구를 열어가 는 지배인을 보며 사람들은 불같은 사람이란다고 하였다.

뜻하지 않게 물결결이 불타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조종렬동무는 결사대를 조직하고

## 청진제 2사범대학에서

우리 조국을 교육혁신, 인재대국으로 빛내는데서 사범교육의 역할이 자못 중요하다.

특히 현전반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키워내기 위해서도 사범교육부문을 중등일반 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폭넓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교육자수비율을 육성하는 문제가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자각한 청진제 2사범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훌륭한 교육자수비율을 키워내기 위해 자질향상의 원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학교원들속에서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자질향상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대학의 일군들인 김철성, 손승철동무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모든 학부와 강좌의 교원들속에서 전공분야의 학위학위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미 학위학위를 소유한 교원들은 그보다 한군 높은 학위학위를 소유하기 위한 자질향상목표를 세우고 소논문집필과 학위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김현일 양골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0일 출리야움 마메우스 빠른 양골라민해방운동 총비서를 의례 방문하였다.

적상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양골라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의 뜨거운 인사를 정중히 전하여 주셨다는 총비서가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과 양골라사이의 관계는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발전하여온 형제적인 관계이다.

양골라민민은 앞으로도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진심으로 도와주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비서동지께서는 탁월



라이에 갔던 체신성대표단 귀국

라이의 방콕에서 진행된 2013년 세계전기통신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실험체신성대표단

자질향상목표를 높이는 세우고

불빛박은 마을의 자랑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된 실험체신성대표단을 보내 화성들을 실천

대학에서 인재들을 키워내자는 람락작업을 실천

체신성대표단 귀국

라이의 방콕에서 진행된 2013년 세계전기통신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실험체신성대표단

체신성 부상이 미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실현은 조국통일이 선결과제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부활을 추구하는 극우보수세력과 민주주의혁신세력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피뢰계약의 파조독립책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을 코에 건 통합진보당 말살소동과 조국통일법률혁합(범민련) 납북문부에 대한 야수적 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합법적 지위박탈과 조국통일운동총합(전공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보적인 인터넷신문 《자주민주》에 대한 강제제간시도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피뢰계약의 흥신은 이번 기회에 《중복》 세력의 씨를 말리우려는 것이다.

미국이 약속을 실수로 부정의가 정에 칼부림을 하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간절한 열정을 무참히 짓밟고 《유신》 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피뢰된 조국통일이 조성되고 있다. 내외여론이 《1950년대 미국 매카시즘풍조 재현》, 《21세기 마녀사냥》으로 단죄하는 피뢰계약의 야만적인 파조판악책들은 남조선사회진반을 독재의 환무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무덤에서 통기기반을 다져며 반역정적을 마음대로 실시하려는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이다.

피뢰지역의 야수적인 파조독립책들은 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고 북남관계와 통일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적당당이다.

피뢰지역의 첫째가는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단체들은 조국통일운동의 일선에 투쟁하는 단체들이다. 조국통일법률혁합(범민련) 납북문부와 인터넷신문 《자주민주》는 피뢰당국의 반통일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하고 남조선인

민들을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단합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왔다. 전교조를 비롯한 단체들도 반통일과 패국으로 얼룩진 최악의 파조사를 청산하고 민주와 통일의 새 기쁨을 다지기 위해 투쟁하는 의로운 단체들이다. 그들의 투쟁은 온 민족과 남조선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애국적투쟁으로서 찬양과 지지를 받으며 받았지 탄압의 대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피뢰계약은 그 무슨 「대적」이나 뭐니 하면서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봉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인권도 허용되지 않는 파조독재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파조독재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폭력으로 말살하며 자주적명목개학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차없이 탄압한다. 파조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대중에게 그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도 보장될 수 없다. 현 피뢰지역의 야만적인 《유신》 독재부활책들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히고 있는 것들 그대 북남관계개선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지금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각층은 사활식과 무기한 단식투쟁 등으로 반 《정부》 투쟁을 파김치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주총과 같이 전전련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의 전민투쟁》을 정식 선포하고 시국선언 발표, 성내대회, 촛불집회, 시가행진 등으로 투쟁기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서울에서라도 5만명이 거리에 떨쳐나 《박근혜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시위를 벌리는 등 대중적투쟁

의 불길이 날로 치솟고 있다. 바바맞은 피뢰계약은 수많은 폭압경찰을 주창하 물때까지 쓰아내면서 각계층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세력이 파조독립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현실은 반독재민주화실현을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독재민주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발전의 길이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지상의 과제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커다란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과 대범한 야망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의 분위기는 파탄되고 북남관계가 파국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책들은 날로 엄중된 단계에 이르러 가고 있다.

오늘의 준엄한 정세는 조국통일운동을 그 어느때보다 황성화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황성화해나가기엔 각계각층의 통일론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의 대항과 접촉을 적극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범위로 확대발전시키는데 민족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의 전향적책들을 열어나가기 위한 출로가 있다.

통일운동을 황성화, 적극화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통일이국을 범죄시하는 반통일독립책들을 말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손과 발을 쇠고랑으로 철저히 없애려는 극악한 파조독재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통일애국운동을 단 한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 남조선의 엄혹한 현실이 보여주다실

이 동족을 찬양했다고 하여 「대적」으로 몰려 박해받고 평화통일을 주창했다고 하여 《중복세력》으로 범죄되는 속에서 어떻게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통일운동이 보장될 수 있었는가. 현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되어야 북남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도 있으며 자주통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독재민주화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통일운동의 절박한 요구이다.

암흑통치하에서 파조독재에 무참히 짓밟힌 인민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땅에 사무쳤다.

반통일보수세력은 저들의 잔영을 부지하기 위해 독단과 전횡, 파쇼와 폭압을 일삼으며 《유신》 독재의 과거를 되살리려고 미처 날뛰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 《정부》 투쟁이 고조될수록 파조독당의 탄압책들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이것을 철저히 짓부시지 못한다면 온 남조선땅은 악명 높게 《유신》의 검은구름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과 사회진보통일을 위해 일선에 애국적인인민들 모두가 무참히 파총되며 쓰러지는 참혹한 사태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온 남조선에서 파조독재의 부활을 저지시키는가 그뿐만 아니라 남조선통일운동의 불꽃을 더욱 세차게 지퍼울림으로써 꿈에 소스근인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허영민

# 《유신》 독재가 되살아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재조신공민중양회 부회장 남화 발표

리첸 재조신공민중양회 부회장이 21일 박근혜당의 《유신》 독재부활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 남조선정세는 《유신》 독재자가 장기집권을 위해 땅과 장갑창을 내몰아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남조선 다음 진보적인 단계들과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피뢰보수세력은 《유신》 독재자의 본을 따서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주민주》 등 제논들의 반역정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북남통일운동을 주창하는 모든 진보적인 정당, 단체, 언론을 《중복》, 《리

적》으로 몰아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고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피뢰보수세당이 칼을 물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는 것은 지난날 《대통령》 선거때 사기협박과 모략으로 권력의 자리를 가로막 불법선거개입사건의 추악한 내막이 드러나고 박근혜당성무로를 선언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극도에 달한 집권위기를 수습하며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심이 갈라졌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은 생존권을 요구해도 《중복》으로 몰리며 눈과 귀, 입은 있어도 못듣고 못지도 말도 못하는 《유신》 독재와 같다고 지탄하였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조광풍이 휘몰아치던 그때로 되돌아가겠다는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당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유신》 독재가 부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유신》 독재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생존권과 민주주의,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도 보장될 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울려야 하며 각계층인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파조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야 한다.

전체 재조신공민들은 언제나 정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며 그들의 《유신》 독재반대,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할것이다.

# 민심을 우롱하는 조뢰집권자를 비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국민, 국회 모두 무시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18일 박근혜가 취임후 첫 「시정연설」이라는 것을 하였는데 그것은 사회적위기와 판면하여 야당과 국민들에 대한 일장춘추로 일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의 위기는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방해와 진상왜도, 정보공개사실추행, 경제민주화 및 민생공약의 편이

는 파기에서 조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집권자의 연설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기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중심은 국회」라니,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다」라니 하는 무책임한 구절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가 조금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사상적인 간섭, 해운 장본인이 바로 집권자 자신

이 아닌가고 반문하였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기 전부터 《국회》를 경찰로 포위하게 하고 연설이 끝나마자 경찰이 야당의원을 폭행한 것은 청와대의 유린행위를 극적으로 보여주었 을뿐 아니라 야당에 전하는 집권자의 신호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규탄하였다. 사설은 국민의 인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민심을 우롱하고 야당을 짓밟는 「정권」이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대결상태를 격화시키는 도발적 망동

대교 해도 민족의 생사존망과 리 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문제들이 화살뿔의 화에 뽀뽀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리이다. 이런 비정치적인 사태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내내와 사적의 열을 발취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피뢰계약의 불붙은 반공화국독재에 대처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뢰계약은 마땅히 여겨서 응당한 교환을 찾아야

데 이어 국방부장관 김관중연도 《국회》에서 저들이 단호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를 《맹망》 시킬지는 폭탄을 량량 쉼쳐냈고, 피뢰합동대본부부장 최윤화가 연영도를 돌아치며 연영도교전에는 《지금 나간 파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형이긴 전쟁형》이라니,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작으로 임무를 수행》 해주기 바라다라니 하고 기업을 두드렸도 결국에 있어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북침전쟁선언이다.

결핵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릴 것 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최근 피뢰통일부 장관 류규제가 《북핵문제에 해결이 없는 남북관계개선을 평화형으로 이끌다.》라니,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저들이 거둔 《성과》가 나간 파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형이긴 전쟁형이라니,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작으로 임무를 수행》 해주기 바라다라니 하고 기업을 두드렸도 결국에 있어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북침전쟁선언이다.

#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현 북남관계와 관련 하여 덤벼드는 수작을 련일 늘어 놓고 있다.

며칠전에도 피뢰계약은 통일부대변인이라는 자를 내세워 《애우 유강》스럽게 생각한다면, 《책임있는 태도를 보임으로 국회 남북관계개선의 길과 나와야 할것》이라니니 뭐니 하는 가에베꾸기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다. 피뢰들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와 내용에 대해 《비합당단》이니, 《최소한의 페의》니 하고 불붙은 소리를 한두번만 외우지 않았다. 마치 저들이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말이다.

북남관계가 모진 우여곡절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첫발을 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대범한 야망과 인식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 각계와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질적인 거부감만큼은 놓고는 남조선집권세력은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동족대결의 길을 택하였다. 피뢰계약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의 도발과 위협》, 《핵포기》와 《연화》를 무리시게 부르트면서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과 정치군사적도발을 일삼은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대교 해도 민족의 생사존망과 리 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문제들이 화살뿔의 화에 뽀뽀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리이다. 이런 비정치적인 사태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내내와 사적의 열을 발취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 두줄기 체도우에 띄어낸 아름다운 꽃

얼마전 함흥철도국 함흥철길대 함흥남철길대를 찾았던 우리가 아가리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함흥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철길조운전투이었다. 그의 이름은 홍국화, 나이는 24살이었다. 첫 보기에 연약해보이는데 처녀처럼 연대우같은 남자와 어울려 일순을 쟁쟁케 놀리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써서 실현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홍국화동무가 함흥남철길대에 온것은 몇몇년전이었다. 함흥철도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그는 꿈도 많고 포부도 큰 청년이었다. 그래서 동창생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택한 직업을 제나름대로 짐작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써서 실현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홍국화동무가 함흥남철길대에 온것은 몇몇년전이었다. 함흥철도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그는 꿈도 많고 포부도 큰 청년이었다. 그래서 동창생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택한 직업을 제나름대로 짐작하고있었다.

# 적발된 12만여건의 선거협잡행위

남조선에서 피뢰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으로 인한 각계의 반 《정부》감정이 세차게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협잡행위를 립증하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피뢰경찰은 정보원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직원들을 내세워 인터넷에 무리 1 2 1만여건의 도발적인 글을 올린 행위를 폭로하면서 보도수를 늘어냈다.

민주당 대표는 《오적 특검단이 진실성을 발휘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면서 집권자가 민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더 큰 항거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속민 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건은 3. 1 5부정선거를 통가하는 최대의 조직적대결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도 정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규탄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것은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적발된 12만여건의 선거협잡행위

민주당 대표는 《오적 특검단이 진실성을 발휘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면서 집권자가 민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더 큰 항거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속민 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건은 3. 1 5부정선거를 통가하는 최대의 조직적대결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도 정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규탄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것은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적발된 12만여건의 선거협잡행위

민주당 대표는 《오적 특검단이 진실성을 발휘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면서 집권자가 민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더 큰 항거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속민 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건은 3. 1 5부정선거를 통가하는 최대의 조직적대결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도 정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규탄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것은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 강의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

《기술원동무, 작업반에서 휴보 산비료를 어떻게 생산하였는지 말해보시오.》

이것은 학습강의에 출연하기 위해 연막에 나선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 학습강사 류승호동무가 기술원에게 한 물음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걸그림을 번거거 말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 류승호동무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유기농법을 철저히 관찰했다.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작업반의 실패와 결부하여 진행하는 그의 강의는 첫순부터 청강자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업반과 선동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정치사상적수준이 높고 남보다 이것이 많아야 합니다.》

강의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

《기술원동무, 작업반에서 휴보 산비료를 어떻게 생산하였는지 말해보시오.》

이것은 학습강의에 출연하기 위해 연막에 나선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 학습강사 류승호동무가 기술원에게 한 물음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걸그림을 번거거 말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 류승호동무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유기농법을 철저히 관찰했다.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작업반의 실패와 결부하여 진행하는 그의 강의는 첫순부터 청강자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업반과 선동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정치사상적수준이 높고 남보다 이것이 많아야 합니다.》

강의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

《기술원동무, 작업반에서 휴보 산비료를 어떻게 생산하였는지 말해보시오.》

이것은 학습강의에 출연하기 위해 연막에 나선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 학습강사 류승호동무가 기술원에게 한 물음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걸그림을 번거거 말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 류승호동무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유기농법을 철저히 관찰했다.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작업반의 실패와 결부하여 진행하는 그의 강의는 첫순부터 청강자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업반과 선동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정치사상적수준이 높고 남보다 이것이 많아야 합니다.》

# 합흥철길대 흥국화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써서 실현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홍국화동무가 함흥남철길대에 온것은 몇몇년전이었다. 함흥철도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그는 꿈도 많고 포부도 큰 청년이었다. 그래서 동창생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택한 직업을 제나름대로 짐작하고있었다.

합흥철길대 흥국화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써서 실현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홍국화동무가 함흥남철길대에 온것은 몇몇년전이었다. 함흥철도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그는 꿈도 많고 포부도 큰 청년이었다. 그래서 동창생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택한 직업을 제나름대로 짐작하고있었다.

합흥철길대 흥국화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써서 실현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홍국화동무가 함흥남철길대에 온것은 몇몇년전이었다. 함흥철도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그는 꿈도 많고 포부도 큰 청년이었다. 그래서 동창생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택한 직업을 제나름대로 짐작하고있었다.

#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펼쳐나선 조선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서 인민의 리상과 문명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이제리아주세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지난 10일 인터넷홈페이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경제강국건설에 큰 힘을 기울이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문명국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것이 김정일동지대의 의도이다. 조선은 이미 문명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나라이다. 교육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왔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도 발전하였다. 농촌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교육이 무료라는 것이다.

도처에 꾸러진 교육기자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으로 이행될 무상초·중·고교를 비롯한 모든 수준으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를 휩쓰는 체육열풍속에 체육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평양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계속 건설되고 최첨단수준의 문화정서생활기자들이 편이이 일떠서 인민들이 가장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정경이 펼쳐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한자시보》는 《세계일등인 조선의 물놀이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 주체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글은 풍치수련대 동강강변에 골 하나의 대표적인 창조물인 문수물놀이장이 일떠섰다고 하면서 문수물놀이장은 야외물놀이

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져있어 사람들이 사계절 마음껏 즐길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파키스탄자력쟁쟁연구협회 서기장은 통라콰등어편을 참관하고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곳으로는 수많은 인민들이 찾아오고있고, 국가의 혜택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민족적공헌과 자부심,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국제경기들에서 선군조선의 상징인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세차게 휘날리는 우리 체육인들의 경기장면을 목격한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우리 나라가 체육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눈부신 성과에 대해 감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의 출판보도물들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체육발전에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인터넷 트론신 드니. 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육인들을 우대하고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

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영도자께서는 특출한 성과를 거둔 체육인들에게 모든 조건이 완비된 살림집을 선물로 안겨주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데 대하여도 밝혀주시었다.》

네팔신문 《데인 세파》와 《전미부미》도 조선은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건설에 큰 힘을 넣고있다고 하면서 체육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아프리카의 한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의 체육열풍은 김정일영도자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가까운 몇몇한데 조선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것이 바로 그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위대한대인원들께서 한평생가우어오신 우리 조국을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전변시키시려는것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격찬하는것처럼 우리 조국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도 가르쳐주셨으며 체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 선수 선발과 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할데 대한 문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문제 등 체육강국건설의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이끄시는 바쁜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훈련모습과 경기들도 보아주시고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선수들도 만나시어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위대한대인원들께서 한평생가우어오신 우리 조국을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전변시키시려는것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격찬하는것처럼 우리 조국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 표시

브라질공산당 제13차대회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 표시하였다.

16일에 채택된 대회결정서는 오랜 세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봉쇄와 경제체제를 받아 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산업혁명을 다그치며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이고있으며 아직도 수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압력, 미국과 남조선의 끊임 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떠돌고있다.

브라질공산당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 온 세상에 존엄떨치는 자주의 강국

국 제 사회 계 가 찬 탄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력에도 굴욕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를 따라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조선과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은 나라들, 지어 일부 대국들까지 미국의 지배주의전략의 희생물, 통략물로 되고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은 자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이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통일화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적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조선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주권과 결심을 따라 당당히 나아가고있다.

나이제리아주세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돌아보면 한세기전 조선의 모습은 식민주의의 비참한 모습이였다. 대국들에 의해 조선의 국권은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자기를 지킬만 한 권력을 가지지 못한탓에 일제에게 짓밟

어린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격찬하는것처럼 우리 조국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격찬하는것처럼 우리 조국은 경에하는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높이 들고있고 있다.》

의 성과적발사를 겪고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제일》을 조작해내자 그를 전면박격하고 자유적대우정책을 단행한 사실을 통째로 이를 갈수 있다.

특히 많은 나라가 미국을 두들머리 하는 제국주의연합협력에 맞서 자기의 자주적존엄을 반방에 파시한 놀라운 현실은 국제사회에 조선이야말로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임을 실감케 하고있다.

도이칠란드국제과학협회 출판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오늘 조선은 엄중한 단계에 이른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을 필요로 하는 핵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조선은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자들은 행성의 그 어디에 있던 무자비한 대항을 마땅히 받을수 있는 상태이다.

칼에는 장검으로, 총에는 대포로 맞서는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원칙이며 철칙한 대응방식이다.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3년전에는 보복의 불세

한 립장은 명백하고 일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측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맹진식고방식을 버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약속을 현실적책임을 져버린 미국에 신의할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하였다.

제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해를 비롯한 모든 본토가 타격대상으로 속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

조선당국이 폐전의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이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전하

스. 루, 우르르, 루, 신문 《포스트볼스카야 브라우디》, 프랑스신문 《몽드》, 우루과이신문 《라 후렌트》, 페루신문 《알 솔루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행위 비난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피가 21일 정기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회 상원의교위원회와 하원의교위원회가 4척

의 미사일위협을 포함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행위를 각각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측은 그 어느 나라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것을 절저히 반대하며 이러

한 립장은 명백하고 일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측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맹진식고방식을 버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약속을 현실적책임을 져버린 미국에 신의할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하였다.

한 립장은 명백하고 일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측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맹진식고방식을 버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약속을 현실적책임을 져버린 미국에 신의할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하였다.

#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강력히 단죄

파키스탄의 무성 대변인이 21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미군무인기가 해버트 파크르드와주에 있는 한 학교에 미사일공격을 가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원들속에서 사상자를 낸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파키스탄의 자주권과 영토안정에 대한 란폭한 침략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무인기공습을 당장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내무상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21일에 감행한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은 파키스탄의 평화를 파

피하는 기본장본인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의 제정연초가 파키스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까맣고 지금 이야말로 파키스탄이 나라의 명예야, 미국의 딸나라를 결성할

때이러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파키스탄정부와 탈리반사회의 회담기간 무인기공습을 중지할데 대한 약속을 현실적책임을 져버린 미국에 신의할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하였다.

한 립장은 명백하고 일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측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맹진식고방식을 버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약속을 현실적책임을 져버린 미국에 신의할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하였다.

# 자 연 교 해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가 확대되고있다.

21일텔레비전 뉴에 의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어나고 4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피해지역에서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 그리스의 로도스섬에서 22일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 2명과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나무들이 넘어지고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섬의 북부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 남아프리카의 율무말랑가주에서 최근 반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번개로 도합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 인디아의 안드라 프라데쉬주에서 22일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이 휩쓸어 피해가 컸다.

폭풍으로 7명이 사망하고 살림집들이 파괴되었으며 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으며 1만 2 000여명이 긴급소송되었다.

현지에서 긴급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 일본의 아키타현에서 21일 휴사레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 휴사레로 2명의 사상자가 나고 4명이 흡속에 묻히었으며 도로가 파괴되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 컴퓨터의 소비전력을 훨씬 줄일수 있는 기술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컴퓨터의 소비전력을 1만분의 1미만으로 줄일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집단은 전자1개로 연산이나 자료를 기억하는 단

0.5V의 전압으로 1개의 전자만을 반도체필자로 드러내 수 있게 하였다.

전자에 대한 모인 전류로 조종하면 소자를 전자 1개만으로도 조종하여 되번 소비전력을 현재의 1만분의 1미만으로 줄일수 있으며 연산속도도 높일수 있다.

식물 잎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성공

식물 잎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성공